## Assignment 1 \_ Bad Interface Case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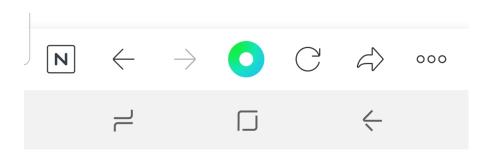
Student ID: 2016163055

Name: 김성우

## Cas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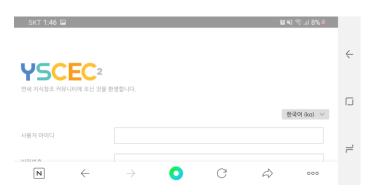
Service Name: NAVER internet browser

Format: mobile app



Problem 1. 메뉴 바의 디자인 문제

아래쪽 메뉴 바에서 자주 쓰는 키인 전 페이지로 가는 버튼 옆에 강제로 홈화면으로 가는 버튼이 있음 실수로 누를 경우 있던 페이지에서 나가서 새로 웹사이트를 찾아서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



Problem 2. 메뉴바가 화면을 가리지만 숨기는 기능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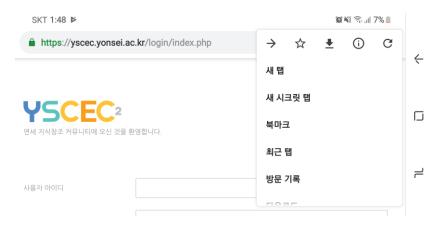
이 문제는 모바일 가로화면에서 잘 드러나는데, 가로로 스마트폰을 보면 높이가 낮고 너비가 긴데 메뉴바 때문에 화면의 상당부분이 가려져서 가로로 웹페이지를 볼 경우 가독성이 매우 떨어짐.

다른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들을 보면 대부분 메뉴 바를 가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해결방안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아래로 스크롤 할 때만 메뉴 바가 나오기 때문에 가독성을 해치지 않음



또한 오른쪽 상단을 탭 하면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터치해서 불쾌한 경험을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음



Case 2

Service name: Galaxy S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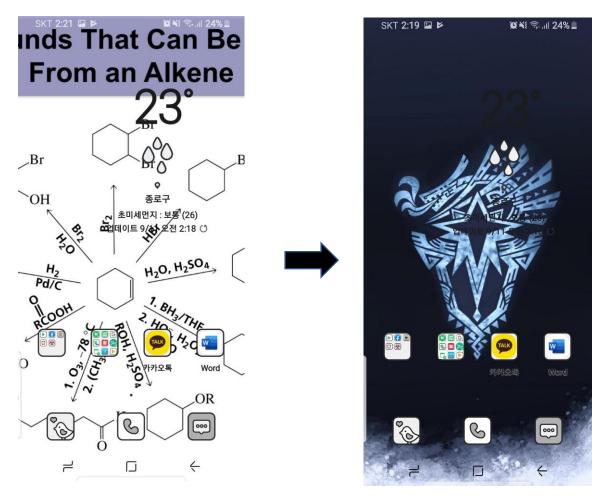
Format: smart phone



Problem 1. 의도치 않은 빅스비 사용 문제

빅스비 버튼이 좌측 중단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손가락 근처에 있어서 잘 못 누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누를 경우 현재 화면을 종료하고 바로 빅스비 화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빅스비가 켜지면 창을 닫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사용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게 된다.

Problem 2. 날씨 앱 가독성 문제



스마트폰에 내장된 날씨 앱의 경우 밝은 화면에서는 왼쪽 사진처럼 잘 보이지만 어두운 화면일 경우 글씨가 검은색이라 거의 알아볼 수가 없게 된다. 게다가 앱 내부에서 글씨체나 색을 조정하 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바꾸어서 가독성을 조절하기도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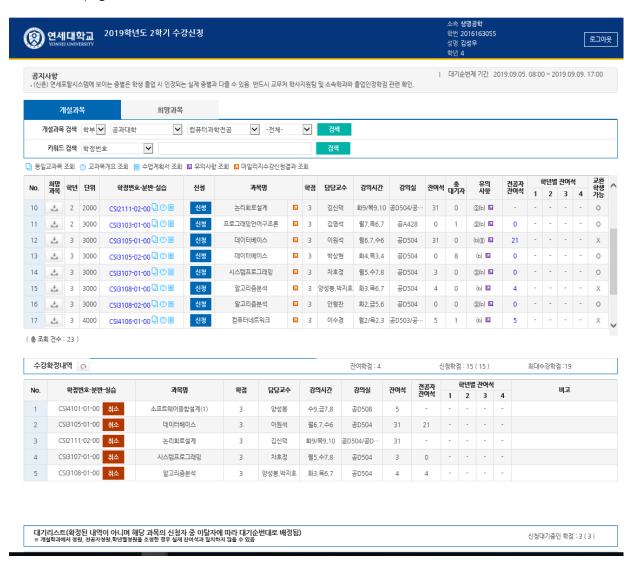
## 해결방안

빅스비 버튼의 경우 따로 해제하는 옵션을 설정의 유용한 기능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 사용자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우므로 처음 켜질 때 안내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날씨 앱의 경우에는 글씨체와 색을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가독성이 좋아질 것으로보인다.

Case 3

Service name: Yonsei course enrollment system

Format: webpage



Problem 1. 수강한 수업의 시각적 피드백 부족

자신이 수강한 과목과 시간표상에서 중복되는 과목은 수강신청이 불가능한데, 중복되는 과목을 신청할 경우 "시간표 중복 과목입니다"라는 알림이 뜨고 정확히 어떤 과목과 시간이 겹치는지 알려주지 않으며, 어떤 과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하나하나 수강한 목록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보통 학생들은 외부 시간표 프로그램으로 이를 확인하는데 웹사이트에서 충분히 사용가능한 기능이기에 구현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해결방안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보여주는 메뉴를 만드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덤으로 선택과목이 어떤 과목 과 중복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편이 좋을 것이다